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8.1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I 컴퓨팅의 금융화: 엔비디아 리스크 완화 요인

외부 자본이 AI 인프라의 위험을 분산. 엔비디아는 직접 자금 부담을 낮추며 성장 수혜

-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 구축 계획은 엔비디아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다.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엔비디아의 구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환 금융에 대한 걱정이 불거지면서 주가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지시각 7월 27일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픈 AI의 엔비디아 GPU 구매를 위한 약 3,500억 달러 수준의 금융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주가는 5% 하락했다.
- AI 인프라의 금융화는 엔비디아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자금조달 부담과 가격 변동 위험 등을 금융 시장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락,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 삭스, KKR 등 6개 금융기관과 독립적인 AI 컴퓨팅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외부 금융기관들이 AI 데이터센터의 사업성 등을 검토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며, 순환금융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다음날 발표된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GPU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컴퓨트 선물 도입 계획도 긍정적이다. GPU의 미래 임대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생긴 것이다. AI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다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향후 GPU 임대가격 하락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미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인프라 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1. 외부 자본 유입으로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 부담 완화

- AI 컴퓨팅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내년에도 지출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창출한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발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 AI를 구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플랫폼(클라우드, 약 45%)과 LLM 토큰(약 12%) 등이다. 플랫폼과 토큰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은 투자 회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네오클라우드나 각국의 소버린 AI 프로젝트는 상황이 다르다.
-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AI 인프라 투자가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의 사업자로 확대될수록 외부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블랙웰 시리즈부터 랙 단위 시스템 판매를 확대하며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AI 팩토리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확장은 엔비디아 생태계 확산으로 이어진다.
- 엔비디아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전진기지로 네오클라우드들을 활용하고 있다. 코어워브는 상장 전부터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2025년 3월 IPO 과정에서 약 2억 5천 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고, 9월엔 63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용량 구매계약을 통해 수요 하방을 보강해주기도 했다. 2026년 1월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코어워브 주식을 매입해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했다. 네비우스엔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람다엔 15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 람다가 엔비디아 GPU를 매입하고, 엔비디아가 그 GPU 기반 클라우드 용량의 고객이 되는 구조다.

- 엔비디아가 직접 큰 돈을 투자하거나, 고객이 되어 매출까지 만들면서 순환금융 우려가 불거졌다.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대출을 보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면 시장참여자들은 GPU 수요의 질(質)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엔비디아의 투자 회수 여부도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을 자극했을 것이다. 네오클라우드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AI 투자사이클이 갑자기 끝나 업황이 악화되면 엔비디아의 투자 회수도 불투명해진다. 엔비디아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5,000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플랫폼은 시장참여자들이 가진 엔비디아 순환금융에 대한 걱정을 완화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직접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직접 각 프로젝트의 수요와 예상 매출, 비용, 투자 회수 가능성들을 평가한 뒤 자금 제공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다. 엔비디아가 모든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부 투자자가 사업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GPU 수요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누리면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금과 보증 부담을 낮추게 될 것이다.

2. GPU 임대가격 위험도 금융시장으로 분산

- CME의 GPU 선물 계약 출시는 AI 투자사이클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CME는 10월 5일 엔비디아의 H100과 B200의 시간당 임대가격 지수를 기초로 하는 선물 2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유처럼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등장한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GPU 가격 변화도 중요하다. 투자 후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새로운 GPU가 계속 출시되고 공급량이 증가하면 기존 GPU 시간당 임대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GPU 임대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 투자수익률도 낮아지고 대출 상환 여력도 줄어든다.
- CME에 GPU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미래 GPU 임대가격 하락을 대비할 수 있다. GPU를 대량으로 임차해야 하는 기업은 임대가격 상승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 가능하다. AI 컴퓨팅의 미래 가격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성 검토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예상 매출을 계산하기 쉬워지며, 투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게도 긍정적이다. 미국 정부 및 금융 당국은 AI 인프라 확산으로 인한 금융 산업의 시스템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코어워브의 메모리 헤지 사례는 CME의 GPU 선물 등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어워브가 메모리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 메모리 기업 주식의 풋옵션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메모리 기업의 풋옵션이 헤지수단으로 거론된 이유는 메모리가 선물시장에 상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코어워브가 메모리 가격 변동성을 직접 헤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GPU 선물 도입은 확장되는 AI 인프라 사업의 직접적인 가격 관리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규)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